



미지의 언어 탐구

보도자료

2018년 9월 11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47 한려빌딩 302호 | 전화 02-765-9682 | 팩스 02-766-9682
휴대전화 010-9609-9682 | 이메일 munhak@silhum.or.kr | 홈페이지 www.silhum.or.kr

제4회 문학실험실 포럼

이청준기념사업회 공동 기획

이청준 10주기 기념 : 이청준 문학의 발화점들

사회 조강석

개회사 홍정선

발제 서영채, 박혜경, 이윤옥, 이수형

일시 : 2018년 9월 28일 (금) 오후 2시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제4회 김현문학패 수여식

시 신영배 | 소설 백민석

일시 : 2018년 9월 28일 (금) 오후 5시 30분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제4회 문학실험실 포럼

이청준기념사업회 공동 기획

이청준 10주기 기념 : 이청준 문학의 발화점들

독립 문학 공간을 지향하며 2015년 출범한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에서 주최하는 네 번째 <문학실험실 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타계한 지 10주기를 맞이하는, 달리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소설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고 이청준 작가를 재조명한다. 특히 이청준 작가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이청준 문학의 발화점을 천착해봄으로써 이청준 문학이 우리에게 남긴 발자취를 반추해보고자 한다. 이번 포럼은 이청준기념사업회(회장 홍정선)와 공동 기획으로 마련되며, 서영채(서울대 교수), 박혜경(문학평론가), 이윤옥(문학평론가), 이수형(명지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조강석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포럼은 9월 28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행 : 조강석 (문학평론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

◎ 개회사 | 홍정선 (문학평론가, 이청준기념사업회 회장)

◎ 발제

한글 세대 이청준의 미션

서영채 (문학평론가,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

개인은 어디에 있는가?-이청준의 초기 단편들

박혜경 (문학평론가)

매잡이와 문턱

이윤옥 (문학평론가)

다른 얼굴을 한 권력-이청준 초기 중·단편을 중심으로 이수형 (문학평론가, 명지대 국문과 교수)

◎ 자유토론

***필요하신 기자분께는 포럼 발제문 전문을 PDF 파일로 보내드릴 수 있사오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4212-0752)**

제3회 김현문학패 수여식

수상자

시 / 신영배 소설 / 백민석

한국문학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독립 문학 공간,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이 선정한 제4회 김현문학패 수상자의 문학패 수여식이 오는 9월 28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다. 2001년 등단한 이래 한국 여성 시의 새로운 경지를 집요하게 개척해온 신영배 시인과, 1995년 등단해 새로운 시대의 모순에 맞서는 ‘분노 자본’의 분출을 통해 소설적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온 백민석 소설가가 그 주인공. 김현문학패 수여식은 2018년 9월 28일(금)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겐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천만 원, 소설 1천5백만 원)이 주어진다.

신영배 – 여성성의 시적 방언, 혹은 여성성의 미학적 해체와 재구성

신영배 시인 1972년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나, 2001년 계간 『포에지』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 『기억이동장치』(2006) 『오후 여섯 시에 나는 가장 길어진다』(2009) 『물속의 피아노』(2013)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날까』(2017) 등을 펴냈으며, 제2회 김광협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오로지 시적 방언으로만 은밀히 소통하려는 비의적(秘儀的) 시인 신영배는 독특한 시적 언어를 통해 여성성의 심원한 세계를 집요하게 탐구해왔으며, 여성성과 그 시적 언술 방식을 미학적으로 완벽하게 결합해냄으로써 한국문학의 또 다른 경지를 여는 중이다.”

신영배 선정의 말 중에서

백민석 – 불경한 상상력을 통한 ‘분노 자본’의 충격적 분출

백민석 소설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5년 계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했다. 『16민거나말거나박물지』(1997) 『장원의 심부름꾼 소년』(2001) 『허끝의 남자』(2013) 『수림』(2017) 등의 중단편집과 『헤이, 우리 소풍 간다』(1995) 『내가 사랑한 캔디』(1996) 『불쌍한 꼬마 한스』(1998) 『목화밭 엮기전』(2000) 『러서』(2003) 『죽은 올빼미 농장』(2003) 『공포의 세기』(2016) 등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의 작품들은 확실히 ‘실험적’이다. 당대의 문학적 식별 체제를 초과하는 언어의 형식을 고안하되, 유희가 아니라 필연적인 이유와 향의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면 말이다. 요컨대 그의 소설들은 당대 문학장의 식별 체제나 비평 담론과 심하게 부딪힘으로써 충격(衝激)적이다.

백민석 선정의 말 중에서